



조선대병원, 경영진과 '존중하기 캠페인'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27일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2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직 내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고객만족팀에서 주관한 이번 상호 존중 캠페인은 집행부 및 실무진 등이 각 부서, 병동, 외래, 검사실 등을 순회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진호 병원장은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되면 직원만족도 증가 및 조직 내 협업과 성과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행동으로 서로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목포 공우회 '청림 High Five' 행사

목포지역 공공기관 연합회 '공우회' (회장 김태정 한국은행 목포본부장)는 지난 27일 청림문화 지역사회 확산과 공직자로서의 청렴 인식 및 공감대 확대를 위해 '청림 High Five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청림 'High Five' 행사에서는 '청렴도 마주칠 때 더 빛이 난다'라는 슬로건 하에 손바닥 모양의 청렴부채와 물 등을 제 53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공우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중 하나인 목포 실내체육관 탁구경기장을 방문해 선수 및 관객 약 500명과 청림 High Five 행사를 함께하며 소년체전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은 "소년체전 선수들과 '공우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행복했다"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공공기관도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보훈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워크숍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24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28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병원장과 간부진, 진료과 의료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료 전문성 및 의료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조를 나누어 주요 토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조는 △입원 병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외래 진료 활성화 방안 △인력 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 병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자치경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발대식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시청 무등홀에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제3기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지난 2022년 발족한 '빛고을 자전거순찰대'는 시민참여형 협력치안 시책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며 마을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기 순찰대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40명의 순찰대원으로 구성됐다. 순찰대는 자전거를 타며 도심 내 주요 생활권에서 발견하는 노후·파손된 방범시설물 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은 △순찰대 범의예방 신고 요령 교육 △활동 물품 전달 △위촉장 수여 △활동 포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동부경찰-조선대 '여성안전' 업무협약 체결

광주동부경찰은 조선대학교 청춘어름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부경찰-조선대학교 간 '여성안전 MZ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MZ세대의 눈높이에서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치안 정책을 찾기 위해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우수한 정책 제언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효과적인 정책 제언 사항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지역 사회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광주 서부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4일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역사 내에서 서구·광주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

서부경찰은 이날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교제폭력·스토킹, 아동학대·가정폭력, 성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역사 내 지하철상무경찰출장소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도 병행했다.

장명봉 서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기능 간 협업을 바탕으로 관내 다중 운집 장소에 진출해 홍보·캠페인 등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에스파 '아마겟돈', 세계 25개 지역 1위

글로벌 그룹 '에스파(aespa·사진)'가 첫 정규 앨범 '아마겟돈(Armageddon)'으로 이 음반의 선공개곡 '슈퍼노바(Supernova)'의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일 공개된 에스파의 '아마겟돈'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 지역 1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칠레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도 정상을 차지했다.

또한 에스파는 중국 텐센트뮤직 산하 5개 음원 플랫폼 통합 K팝 차트 1위,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및 발매 3시간 만에 더블 플래티넘 앨범 인증 등극(판매액 200만 위안 초과 시 부여), 전체·한국 뮤직비디오 차



트 1위, 쿠고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본 로컬 플랫폼 AWA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 mora 외국곡 최신 및 데일리 차트 1위 등 각종 글로벌 차트도 휩쓸었다.

더불어 타이틀 곡 '아마겟돈'은 멜론, 벅스, 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멜론 톱100에 진입하는 등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

에스파는 이미 '슈퍼노바'로 인기를 확인 중이었다. 멜론 톱100·핫100, 벅스, 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의 실시간 및 일간, 주간 모두 1위에 오르며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다.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횟수 역시 3300만 회를 넘어섰다. **뉴시스**

악뮤, 미니 3집 트랙리스트 공개... 타이틀곡 '히어로'

남매 듀오 '악뮤(AKMU)' (이찬혁·이수현)의 세 번째 미니앨범 트랙리스트가 베일을 벗었다. 타이틀곡은 '히어로(Hero)'다.

28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악뮤의 세 번째 미니앨범 '러브 에피소드(LOVE EPISODE)'에는 '히어로'를 시작으로 '똥디', '케익의 평화', '답답해'가 차례로 담겼다. 여기에 지난해 발매돼 현재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번째 싱글의 '러브 리(Love Lee)', '후라이의 꿈'을 더한 총 6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타이틀곡 '히어로'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전일 공개된 포스터가 힌트가 됐다. 다양한 색의 꽃으로 수놓인 들판과 커다란 성, 그 앞에 이찬혁과 이수현으로 연상되는 실루엣이 일러스트로 표현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의 따뜻한 동화와 같은 러브송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일상적이고 친근한 소재들을 녹여낸 수록곡들은 악뮤만의 감성이 깃든 담백한 음악 세계를 예감하게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테마로 삼은 트랙들인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뉴시스**



'러브 에피소드' 역시 이찬혁이 전곡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맡았다. 그간 독창적인 시선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수많은 히트곡들을 배출해낸 그와 함께 외부 협업진이 힘을 보태 색다른 시너지를 예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주를 준 음악을 담은 앨범"이라며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이지리스닝 곡들로 채운 만큼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장동건·원빈 '태극기 휘날리며' 4K로 현충일 재개봉

롯데시네마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재개봉한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두 형제의 갈등과 우애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그렸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다. 장동건과 원빈이 각각 진태, 진석 역을 맡아 형제 연기를 선보였다. 올해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된 버전으로 6월6일 현충일에 재개봉한다.

개봉에 앞서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태극기 휘날리며' GV(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강제규 감독과 흥경표

촬영감독, 이동준 음악감독, 이화정 기자가 참석한다. 촬영·제작 비하인드 회고와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사랑해준 팬들과 개봉 당시의 추억을 나누는다.

롯데시네마는 '태극기 휘날리며' 액션 스케일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와이드 울트라 스크린(WIDE ULTRA SCREEN)·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슈퍼 플렉스(SUPER PLEX)·광음시네마 특화관 상영을 준비했다. 영화 재개봉을 맞아 특별관람가 1만원으로 볼 수 있으며 단체 관람객 대상으로도 혜택을 마련했다. **뉴시스**